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2014년 한국 경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 새해 한국경제의 전망과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은?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14년 한국 경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 새해 한국경제의 전망과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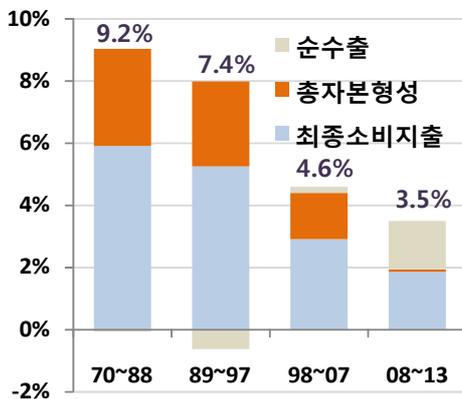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2014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3
3. 시사점	13
【별첨】 설문조사 결과	15
【HRI 경제 통계】	23

< 요약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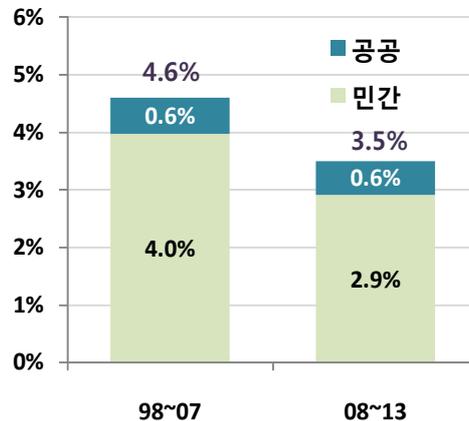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이 부진하여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에서 이후(2008~2013년) 3.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는 투자 부진이며,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잠재성장률 3.5%중 0.1%p 정도에 불과할 정도이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공공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0.6%p에 이르고 있어 만약 공공 부문이 없었다면 잠재성장률은 3% 미만에 그쳤을 수도 있었다.

<잠재성장률과 지출항목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3년 성장률은 현경연 전망치 사용.

<잠재성장률과 공공 및 민간 수요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3년은 1~3분기 실적치를 이용 추정.

이와 같은 취약한 성장잠재력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4년 한국 경제는 반드시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성장잠재력을 복원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연구소, 협회, 단체 등의 경제 전문가 집단(5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2014년 한국경제 전망과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2014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2014년 대내외 경제 여건)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2014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불안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41.1%)'을 들고 있다. 또한 가장 큰 국내 불안 요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26.7%)를 지적하고 있었으나 '경제관련 입법 지연(19.8%)', '사회갈등(19.8%)', '내수 디플레(18.6%)' 등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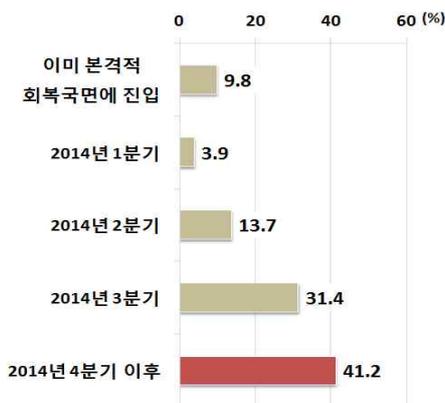
(2014년 한국 경제 전망) 정부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8% 내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6%가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적정하거나 낮다'는 응답도 약 40%나 되었다. 한편,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응답자의 약 55%가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2.6%가 2014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2014년 국내 경기가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부문으로 응답자의 66.7%가 '수출'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주요 부문 및 시장의 방향성) 민간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들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들고 있으며, 기업투자 회복의 걸림돌로는 '미흡한 대내외 경기 회복세(50.0%)', '투자 심리 자체의 냉각(38.5%)'을 들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2014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4년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1%가 '2013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는 비율도 36.5%나 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2014년 주택 시장이 2013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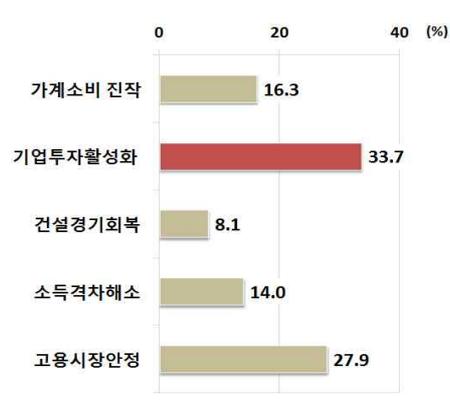
(2014년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 응답자의 63.5%는 2014년 경제 정책은 '경기활성화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투자 활성화'(33.7%)와 '고용시장 안정'(27.9%)을 들고 있다. 나아가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경쟁력 하락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82.7%)는 비율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2014년 통화정책은 현재 기준 금리(2.5%)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금리 인하(32.7%) 및 금리 인상(19.2%)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73.0%가 현재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이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63.4%는 소득 불균형 수준이 선진국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 전망>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014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기준.

■ 시사점

2014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해외리스크 관리 및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내수 디플레 가능성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 부채 문제 연착륙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1. 개요

○ 금융위기 이후 공공 부문이 일정 수준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였으나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이 부진하여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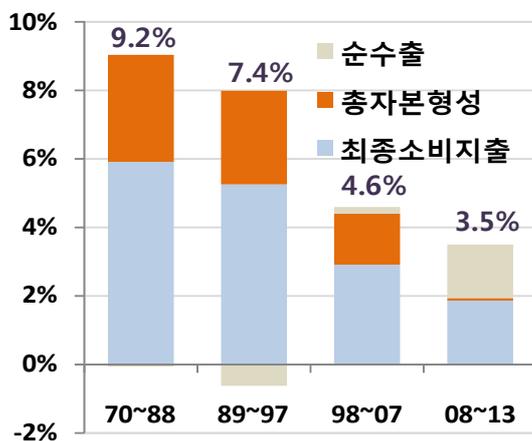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6%에서 이후 3.5%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6%에서 이후 3.5% 수준까지 하락함
- 2012년 연구원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2년) 잠재성장률 수준은 3.8% 이었으나, 이번에 2008~2013년으로 확장하여 추정한 결과 3.5% 수준으로 평가됨

- 수요 부문별로는 투자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공공 부문이 일정 수준 이상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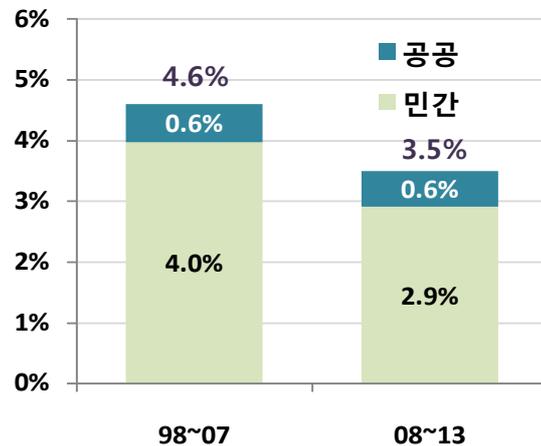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잠재성장률 3.5%중 0.1%p 정도에 불과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0.6%p로 만약 공공 부문이 없었다면 잠재성장률은 2.9% 수준에 그쳤을 것임

<잠재성장률과 지출항목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3년 성장률은 현경연 전망치 사용.

<잠재성장률과 공공 및 민간 수요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3년은 1~3분기 실적치를 이용 추정.

<잠재성장률 추정 방법>

- 본 보고서는 연구원의 기 발간 보고서인 “잠재성장률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락(경제주평, 12-03, 통권 제 474호, 2012. 1. 20.)의 방법을 사용함¹⁾
- 잠재성장률이란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하에서 한 국가가 사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을 의미
- 기존 보고서 결과와의 차이점은 1998~2007년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4.7%에서 4.6%로 하락하였으며, 기존 2008~2012년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3.8%인데 반하여 새롭게 추정된 2008~2013년의 성장률은 3.5%로 낮아짐

- 2014년은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력을 높이지 못하여 저성장의 함정에 갇히거나, 성장잠재력 확충에 성공하여 경제 발전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갈림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수준은 더 이상 후퇴하기 어려운 수준에 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도 수년간 지속되어 온 투자 부진으로 자본 스톡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의 경기 진작책도 한계를 맞이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저성장의 함정에 갇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14년은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력을 높이지 못하여 저성장의 함정에 갇히거나, 성장잠재력 확충에 성공하여 경제 발전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갈림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행히 최근 대외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한국 경제에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며 민간 부문에서도 소비와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을 나타냄
 - 그러나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본 보고서는 경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4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 바람직한 경제정책을 모색해 보았음

1) 잠재성장률은 실제 관측이 불가능한 개념이나 추정목적에 따라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접근법, 구조모형 접근법 등 다양한 계량분석방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필터링을 통한 추세 GDP를 추정하는 시계열접근법을 사용함.

2. 2014년 한국경제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1) 조사 개요

- 경제 전문가 총 52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함
- 조사 기간은 2012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이용함
- 응답자를 소속 기관별로 보면 정부출연 연구소 23명(44.2%), 민간 연구소 17명(32.7%), 협회/단체 10명(19.2%), 기타 2명(3.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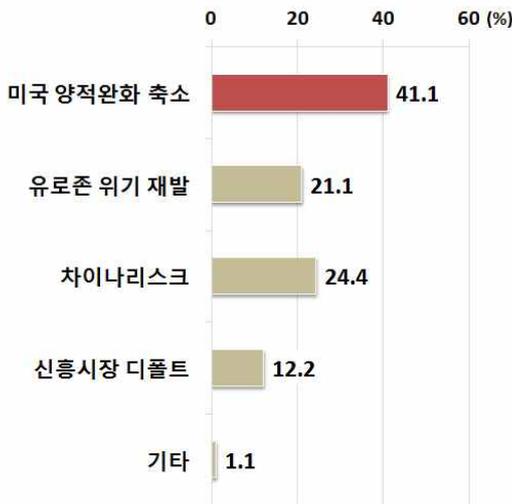
(2) 조사 결과

○ 2014년 대내외 경제 여건

- (대외 불안 요인) 전문가들은 2014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불안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을 지적
 -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을 가장 우려했으며(41.1%)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는 24.4%로 2위로 조사
 - 3위는 '유로존 위기의 재발 우려'(21.1%)로 조사되었으며 '신흥시장 디폴트'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12.2%로 다소 낮음
 - 정부출연 연구소는 '차이나 리스크(중국경제 경착륙)'(34.9%), 민간 연구소에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48.1%)를 가장 큰 대외 불안 요인으로 평가
- (국내 불안 요인)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문제가 2014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국내 불안 요인으로 평가
 - 전문가들은 2014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국내 불안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26.7%)를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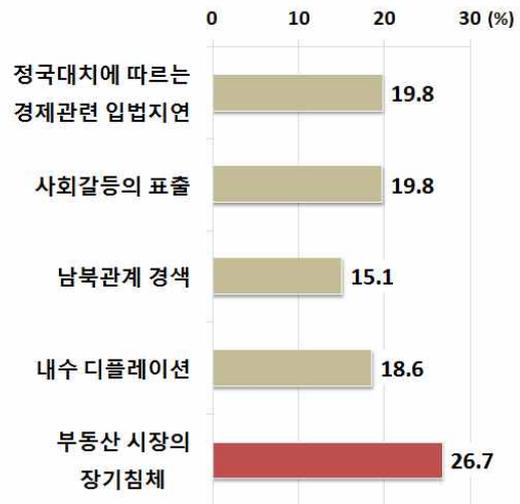
- '정국 대치에 따르는 경제 관련 입법 지연'과 '사회 갈등의 표출'이 모두 19.8%로 공동 2순위로 지적되어 최근 정치, 사회적 혼란이 2014년 국내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정부출연 연구소는 '사회 갈등의 표출'(26.3%), 협회 및 단체는 '정국 대치에 따르는 경제 관련 입법 지연'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각 29.4%),
- 민간 연구소는 '내수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각 25.9%)를 국내 불안 요인 1순위로 평가

<2014년 대외 불안 요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기준.

<2014년 국내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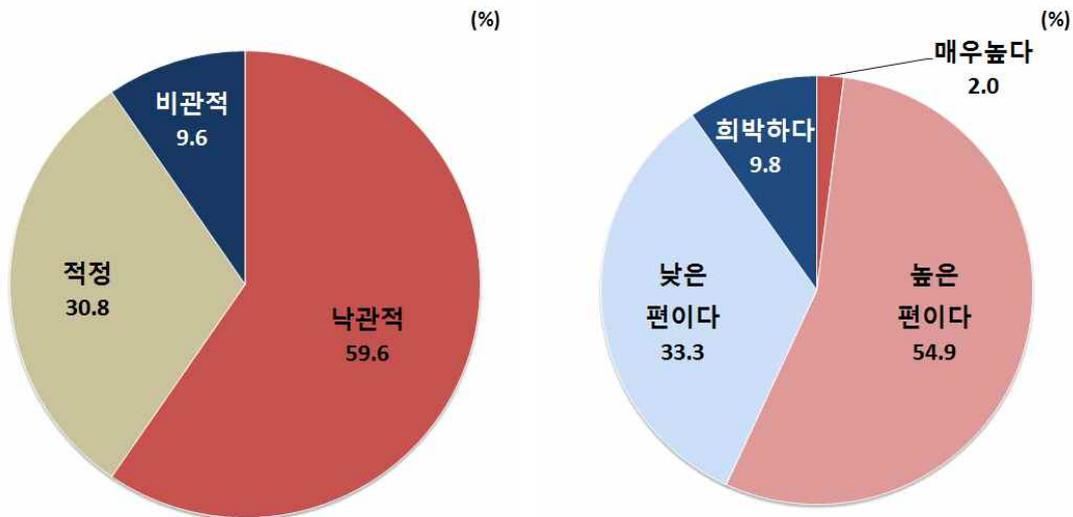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기준.

○ 2014년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의 2014년 전망에 대해서 약 60%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40%는 걱정하거나 목표치가 낮다고 평가
 - 정부는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약 59.6%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평가
 - 한편, 정부의 전망이 '걱정하다(30.8%)'와 '비관적(9.6%)'이라는 응답도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플레이션 가능성)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문가의 약 55%가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
 -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매우 높다'와 '높은 편이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54.9%
 - 정부출연연구소(65.2%)와 협회/단체(60.0%)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민간연구소는 50.0%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연구소 별 시각차 존재

<정부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평가> <2014년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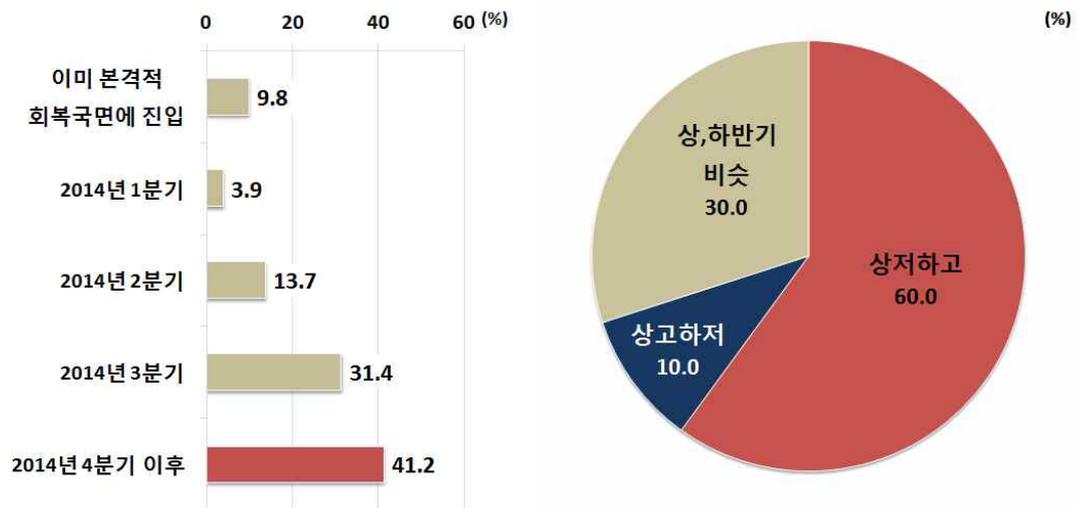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국내 경제 회복 시기) 전체 응답자의 약 72.6%가 국내 경제의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를 2014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
 -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에 대해 전문가의 41.2%가 2014년 4분기 이후라고 응답
 - 정부출연연구소의 54.5%, 민간연구소의 35.3%는 2014년 4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협회/단체 관계 전문가들은 2014년 3분기로 응답한 비율이 50.0%
 - 즉, 회복 시기에 대한 다소의 견해 차가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14년 국내 경제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국내 경기 상·하반기 추세)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2014년 국내 경기가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진단

- 2014년 국내 경기의 상·하반기 추세에 대해 60.0%는 '상저하고', 30.0%는 '상·하반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상고하저'라는 응답은 10.0%
-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단체 관계자들 모두 '상저하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2014년 상·하반기 추세에 대한 견해가 일치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 전망> <2014년 국내 경기의 상·하반기 추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한국 경제 선도 부문) 전문가들은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부문으로 '수출'을 1순위로 평가

- 전문가 중 66.7%가 '수출'이 2014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 '수출'에 이어 '기업의 설비투자'와 '정부의 경기부양책'(각 11.8%)이 2014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건설경기' 부문에 대한 평가는 2.0%에 불과
-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단체 관계자들 모두 '수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견해 일치

○ 2014년 주요 부문 및 시장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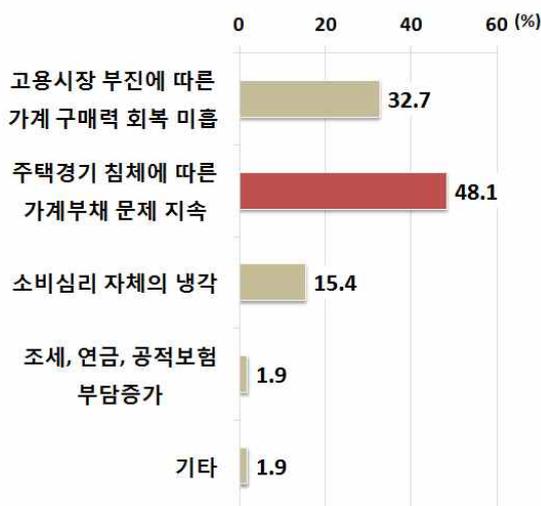
- (민간소비 회복의 장애요인)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가 2014년 민간 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를 민간 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한 전문가가 48.1%로 조사
- ‘고용시장 부진에 따른 가계 구매력 회복 미흡’이 32.7%로 2위, ‘소비심리 자체의 냉각’이 15.4%로 3위로 평가
- 정부출연 연구소는 ‘고용시장 부진에 따른 가계 구매력 회복 미흡’(43.5%)을, 민간 연구소는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52.9%)를 민간 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

- (기업투자 회복의 장애요인) 기업 투자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미흡한 대내외 경기 회복세가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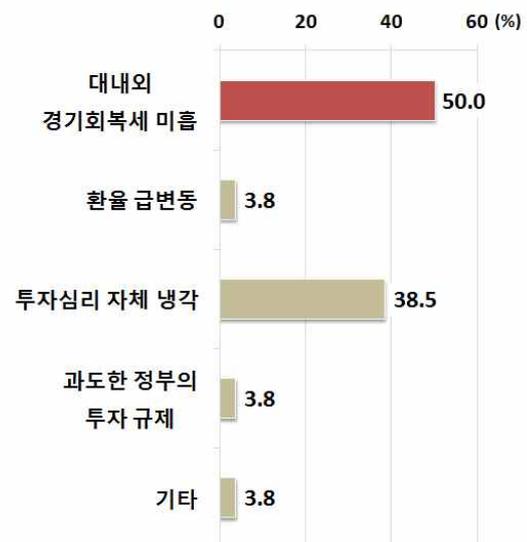
-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회복의 걸림돌로 대내외 경기 회복세 미흡을 1위로 평가했으며(50.0%), 투자 심리 자체의 냉각이 38.5%로 2위
- 이에 반해 ‘환율 급변동’(3.8%), ‘과도한 정부의 투자 규제’(3.8%) 등은 2014년 기업투자 회복에 심각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014년 민간 소비 회복의 장애요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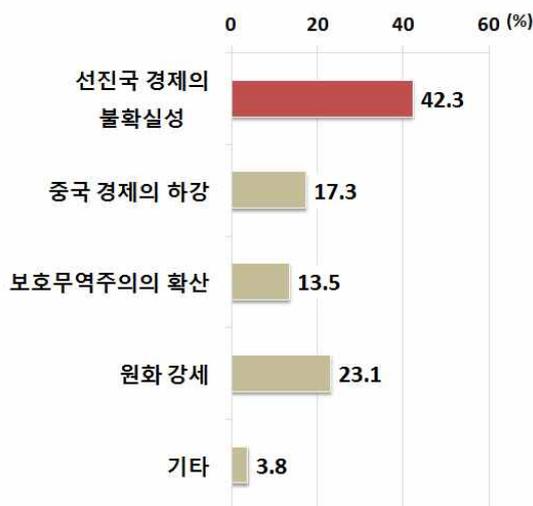
<2014년 기업투자 회복의 장애요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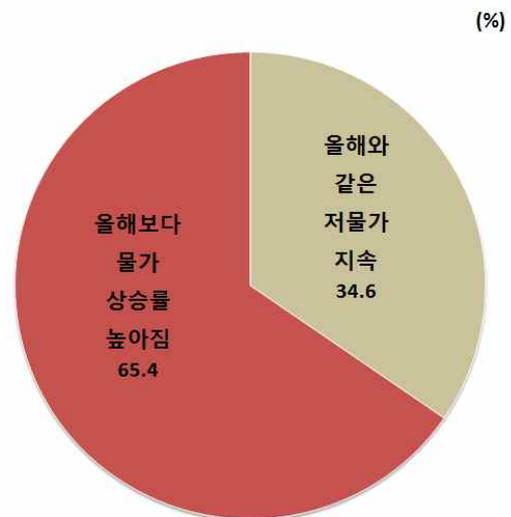
- (수출경기 회복의 장애요인) 전문가들은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2014년 수출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들로 판단
 -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전문가 비중이 42.3%로 '원화 강세'(23.1%), '중국경제 하강'(17.3%), '보호무역주의 확산'(13.5%) 등을 압도
 - 정부출연연구소의 56.5%, 협회/단체의 50.0%가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판단한 반면,
 - 민간연구소는 '원화 강세'(47.1%)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부출연연구소 및 협회/단체와 견해 차 존재
- (2014년 물가 전망)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은 2014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1.4% 내외로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2014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이 65.4%
 - 정부출연연구소(69.6%)와 민간연구소(76.5%)는 대체로 2014년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높아진다고 전망한 반면,
 - 협회/단체는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60.0%)해 2014년 물가 전망에 대해 연구소 별 견해 상이

<2014년 수출 경기 회복의 장애요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014년 물가 전망>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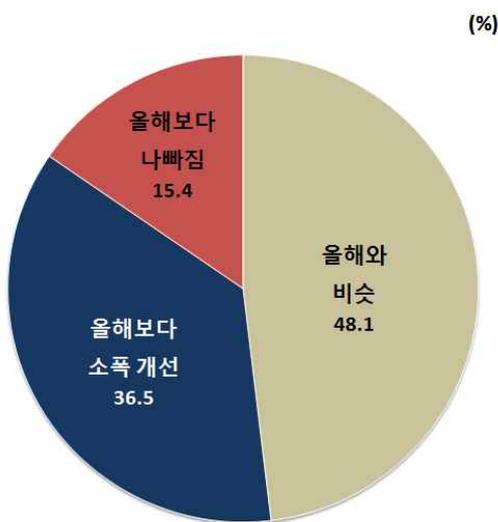
- (2014년 고용 시장 전망) 전문가 중 48.1%는 2014년 고용 시장이 2013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고용시장은 약 4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가운데, 전문가들의 48.1%는 2014년 고용 시장 상황이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약 36.5%의 전문가는 2014년 고용 시장이 2013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15.4%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
- 정부출연연구소(43.5%)와 협회/단체(70.0%)는 2013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는 반면 민간연구소는 약 52.9%가 2013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주택 시장 전망)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은 2014년 주택 시장이 2013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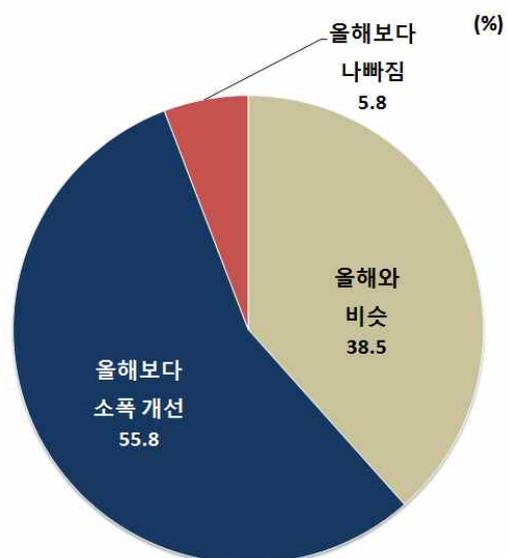
- 2014년 주택 시장이 2013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이 55.8%로 가장 우세
- 2013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은 38.5%로 조사되었으며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5.8%에 불과
- 조사 대상 연구소들의 과반수 이상이 모두 주택 시장이 2013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14년 고용 시장 전망>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014년 주택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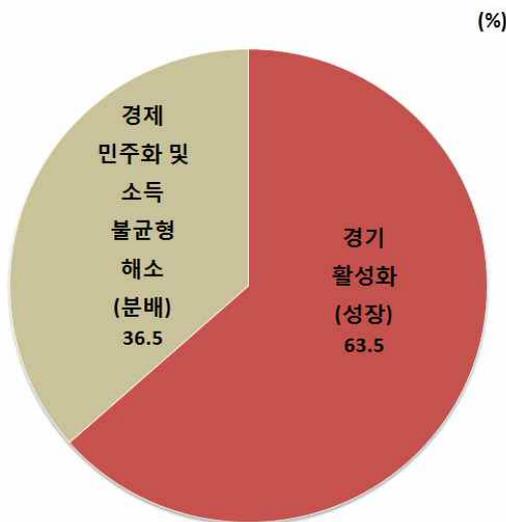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014년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

-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응답자의 63.5%가 2014년 경제 정책은 '경기활성화'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전문가 중 63.5%가 2014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경기활성화(성장)'에 두어야 한다고 응답
 - 조사 대상 연구소 모두 2014년 경제 정책에 있어 '경기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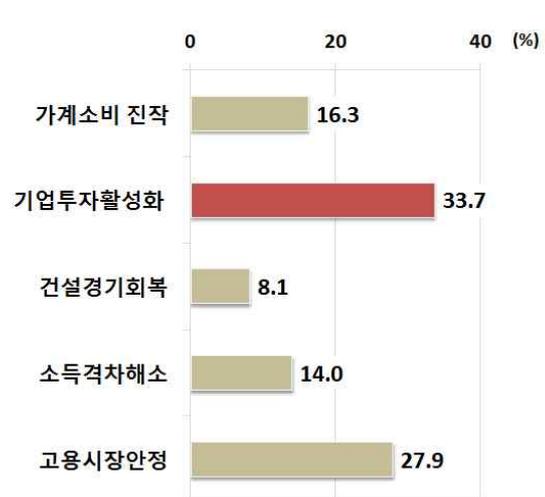
- (정부의 최우선 과제) 전문가들은 2014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선정
 -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33.7%)와 및 '고용시장 안정'(27.9%)를 2014년 정부의 최우선 과제 1·2순위로 평가했으며,
 - 이 외에도 '가계소비 진작'(16.3%), '소득격차 해소'(14.0%), '건설경기 회복'(8.1%) 순으로 응답
 - 조사 대상 연구소 모두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2014년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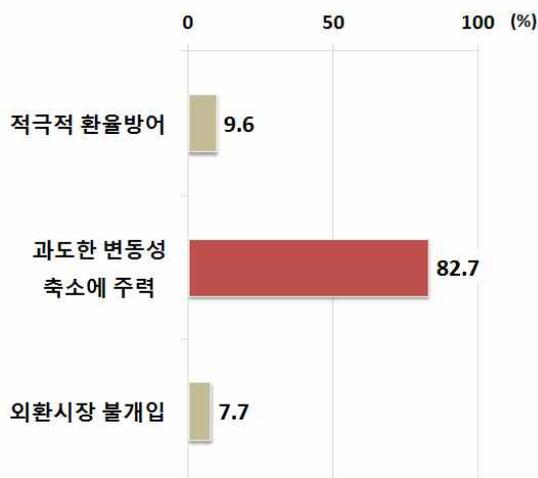
<2014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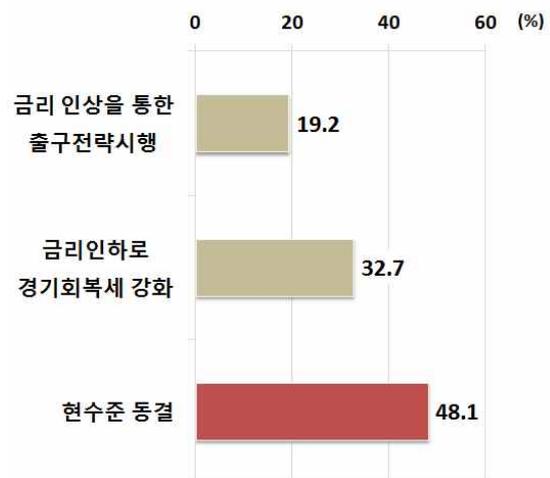
- (2014년 외환 시장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2014년 외환 시장 정책에 있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
 -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 전문가들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보다는 (9.6%)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평가(82.7%)
 - 단 '외환시장 불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는 7.7%에 불과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외환시장 개입을 용인
- (2014년 통화 정책 방향) 전문가들의 48.1%는 2014년에도 현재 기준 금리 수준인 2.5%를 유지해야 한다고 평가
 - 2013년 현재 기준 금리(2.5%)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금리 인하(32.7%) 및 금리 인상(19.2%)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상회
 - 금리를 인상해 출구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45.5%는 2014년 0.5%p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58.8%는 2014년 0.5%p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2014년 기준 금리를 변동 하더라도 변동폭은 제한적

<2014년 외환시장 정책의 방향>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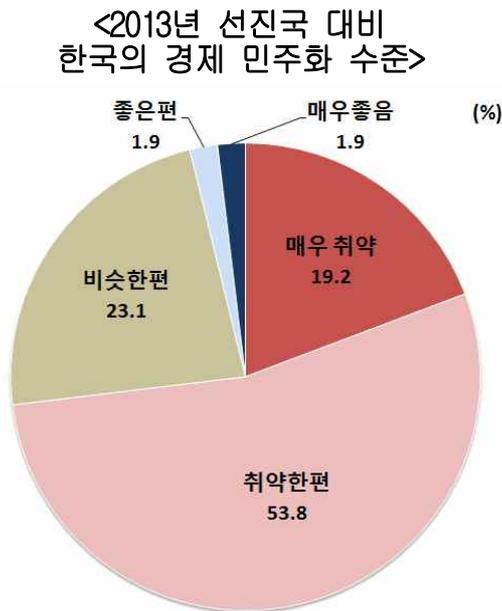
<2014년 통화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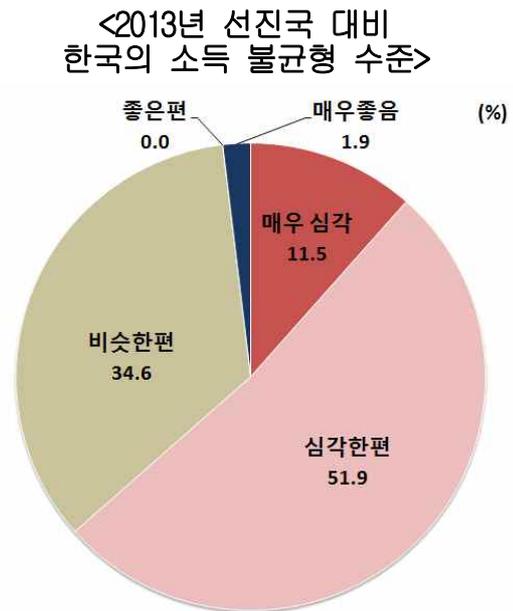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 전문가의 73.0%가 현재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이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고 평가
 -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3.1%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보다 취약하다('매우 취약' 및 '취약한 편')는 응답은 73.0%
 - 전문가 중 19.2%는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이 선진국 대비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
 - 조사 대상 연구소 모두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이 선진국 대비 취약한 수준이라는 의견 일치

- (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 전문가의 63.4%가 현재 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이 선진국 대비 심각하다고 평가
 - 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이 선진국보다 심각하다('매우 심각' 및 '심각한 편')는 응답은 63.4%로 조사
 -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는 34.6%에 불과했으며 선진국 대비 좋은 편('매우 좋음' 및 '좋은 편')으로 응답한 평가는 1.9%에 불과
 - 조사 대상 연구소 모두 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이 선진국 대비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 일치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3. 시사점

-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2014 경제 정책 주된 방향을 기업투자 활성화 및 수출 확대에 두어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해야함을 시사하고 있음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 응답자의 상당수가 2014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이 성장 및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임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걸림들로 지적되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임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해외리스크 관리 및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은 수출 경기 상승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2014년 예상되는 수출경기 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 문제와 원화 강세를 비중 있게 지적하고 있음
- 선진국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별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차별적인 수출 및 진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신흥국 경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함

- 특히, 외환 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환율의 방향성 문제보다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임

셋째, 내수 디플레 가능성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 부채 문제 연착륙 노력이 요구된다.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함
- 특히 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와 고용시장 부진에 따른 가계 구매력 회복이 미흡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
- 디플레이션 함정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넷째, 성장잠재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 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과 소득 불균형 문제가 선진국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사 결과 2014년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기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칫 '경제 민주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이 성장 복원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추진이 요구됨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백다미 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별첨】 설문조사 결과

1. 2014년 대내외 경제 여건

문1. 내년도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불안 요인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유로존 위기 재발	차이나 리스크	신흥시장 디폴트	기타
전체	41.1	21.1	24.4	12.2	1.1
정부출연 연구소	32.6	25.6	34.9	7.0	0.0
민간 연구소	48.1	14.8	18.5	18.5	0.0
협회/단체	50.0	18.8	6.3	18.8	6.3
기타	50.0	25.0	25.0	0.0	0.0

문2. 내년도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불안 요인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정국대치에 따른 경제관련 입법지연	사회갈등의 표출	남북관계 경색	내수 디플레이션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전체	19.8	19.8	15.1	18.6	26.7
정부출연 연구소	21.1	26.3	13.2	15.8	23.7
민간 연구소	14.8	14.8	18.5	25.9	25.9
협회/단체	29.4	17.6	11.8	11.8	29.4
기타	0.0	0.0	25.0	25.0	50.0

문3.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이후
전체	59.6	38.5	1.9
정부출연 연구소	34.8	60.9	4.3
민간 연구소	82.4	17.6	0.0
협회/단체	80.0	20.0	0.0
기타	50.0	50.0	0.0

2. 2014년 한국 경제 전망

문4. 정부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낙관적	적정	비관적
전체	59.6	30.8	9.6
정부출연 연구소	56.5	26.1	17.4
민간 연구소	58.8	35.3	5.9
협회/단체	70.0	30.0	0.0
기타	50.0	50.0	0.0

문5.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매우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희박하다
전체	2.0	54.9	33.3	9.8
정부출연 연구소	4.3	65.2	21.7	8.7
민간 연구소	0.0	31.3	50.0	18.8
협회/단체	0.0	60.0	40.0	0.0
기타	0.0	100.0	0.0	0.0

문6.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

	이미 본격적 회복국면 진입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이후
전체	9.8	3.9	13.7	31.4	41.2
정부출연 연구소	9.1	4.5	13.6	18.2	54.5
민간 연구소	17.6	0.0	11.8	35.3	35.3
협회/단체	0.0	10.0	20.0	50.0	20.0
기타	0.0	0.0	0.0	50.0	50.0

문7. 내년도 국내 경기의 상,하반기 추세는?

(%)

	상저하고	상고하저	상,하반기 비슷
전체	60.0	10.0	30.0
정부출연 연구소	52.4	4.8	42.9
민간 연구소	52.9	23.5	23.5
협회/단체	90.0	0.0	10.0
기타	50.0	0.0	50.0

문8.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부문은?

(%)

	수출	민간소비	기업 설비투자	건설경기	정부의 경기부양책
전체	66.7	7.8	11.8	2.0	11.8
정부출연 연구소	50.0	13.6	18.2	4.5	13.6
민간 연구소	76.5	5.9	11.8	0.0	5.9
협회/단체	80.0	0.0	0.0	0.0	20.0
기타	100.0	0.0	0.0	0.0	0.0

3. 2014년 주요 부문 및 시장의 방향성

문9. 내년 민간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용시장 부진에 따른 가계 구매력 회복 미흡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지속	소비심리 자체의 냉각	조세, 연금, 공적보험 부담증가	기타
전체	32.7	48.1	15.4	1.9	1.9
정부출연 연구소	43.5	39.1	8.7	4.3	4.3
민간 연구소	17.6	52.9	29.4	0.0	0.0
협회/단체	30.0	60.0	10.0	0.0	0.0
기타	50.0	50.0	0.0	0.0	0.0

문10. 내년 기업투자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내외 경기회복세미흡	환율 급변동	투자심리 자체 냉각	과도한정부의 투자규제	기타
전체	50.0	3.8	38.5	3.8	3.8
정부출연 연구소	47.8	4.3	47.8	0.0	0.0
민간 연구소	41.2	5.9	41.2	0.0	11.8
협회/단체	70.0	0.0	10.0	20.0	0.0
기타	50.0	0.0	50.0	0.0	0.0

문11. 내년도 수출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하강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화 강세	기타
전체	42.3	17.3	13.5	23.1	3.8
정부출연 연구소	56.5	30.4	8.7	4.3	0.0
민간 연구소	11.8	11.8	23.5	47.1	5.9
협회/단체	50.0	0.0	10.0	30.0	10.0
기타	100.0	0.0	0.0	0.0	0.0

문12. 올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1.4% 내외수준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내년 물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올해와 같은 저물가 지속	올해보다 물가상승률 높아짐
전체	34.6	65.4
정부출연 연구소	30.4	69.6
민간 연구소	23.5	76.5
협회/단체	60.0	40.0
기타	50.0	50.0

문13. 올해 고용시장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40만개 내외 수준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고용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올해와 비슷	올해보다 소폭 개선	올해보다 나빠짐
전체	48.1	36.5	15.4
정부출연 연구소	43.5	34.8	21.7
민간 연구소	41.2	52.9	5.9
협회/단체	70.0	20.0	10.0
기타	50.0	0.0	50.0

문14. 내년 주택 시장 경기는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올해와 비슷	올해보다 소폭 개선	올해보다 나빠짐
전체	38.5	55.8	5.8
정부출연 연구소	39.1	52.2	8.7
민간 연구소	35.3	64.7	0
협회/단체	40	50	10
기타	50	50	0

4. 2014년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

문15. 내년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 활성화	경제민주화 및 소득 불균형 해소
전체	63.5	36.5
정부출연 연구소	60.9	39.1
민간 연구소	64.7	35.3
협회/단체	70.0	30.0
기타	50.0	50.0

문16. 내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부문은 ?(복수응답)

(%)

	가계소비 진작	기업투자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소득격차 해소	고용시장 안정
전체	16.3	33.7	8.1	14.0	27.9
정부출연 연구소	17.1	31.4	2.9	17.1	31.4
민간 연구소	17.2	37.9	13.8	10.3	20.7
협회/단체	16.7	33.3	5.6	11.1	33.3
기타	0.0	25.0	25.0	25.0	25.0

문17. 최근 원화 강세로 수출경쟁력 하락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년 바람직한 외환시장 정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적극적 환율방어	과도한 변동성 축소에 주력	외환시장 불개입
전체	9.6	82.7	7.7
정부출연 연구소	13.0	78.3	8.7
민간 연구소	11.8	76.5	11.8
협회/단체	0.0	100.0	0.0
기타	0.0	100.0	0.0

문18. 올해 기준금리(2.5%) 수준을 감안할 때 내년 바람직한 통화정책(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시행	금리인하로 경기회복세 강화	현수준 동결
전체	19.2	32.7	48.1
정부출연 연구소	17.4	21.7	60.9
민간 연구소	29.4	23.5	47.1
협회/단체	0.0	70.0	30.0
기타	50.0	50.0	0.0

문18-1. 내년 바람직한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1.0%p 인상	0.75%p 인상	0.5%p 인상	0.25%p 인상
전체	18.2	18.2	45.5	18.2
정부출연 연구소	0.0	0.0	60.0	40.0
민간 연구소	40.0	20.0	40.0	0.0
협회/단체	0.0	0.0	0.0	0.0
기타	0.0	100.0	0.0	0.0

문18-2. 내년 바람직한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1.25%p 인하	1.0%p 인하	0.5%p 인하	0.25%p 인하
전체	5.9	23.5	58.8	11.8
정부출연 연구소	20.0	20.0	60.0	0.0
민간 연구소	0.0	25.0	75.0	0.0
협회/단체	0.0	28.6	42.9	28.6
기타	0.0	0.0	100.0	0.0

문19. 현재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

	매우 취약	취약한편	비슷한편	좋은편	매우 좋음
전체	19.2	53.8	23.1	1.9	1.9
정부출연 연구소	17.4	65.2	17.4	0.0	0.0
민간 연구소	23.5	35.3	29.4	5.9	5.9
협회/단체	10.0	70.0	20.0	0.0	0.0
기타	50.0	0.0	50.0	0.0	0.0

문20. 현재 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

	매우 심각	심각한편	비슷한편	좋은편	매우 좋음
전체	11.5	51.9	34.6	0.0	1.9
정부출연 연구소	13.0	65.2	21.7	0.0	0.0
민간 연구소	11.8	41.2	41.2	0.0	5.9
협회/단체	10.0	40.0	50.0	0.0	0.0
기타	0.0	50.0	50.0	0.0	0.0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	2.6	3.8	
	민간소비(%)	2.4	1.7	1.5	1.7	2.2	-	2.0	2.7	
	건설투자(%)	-4.7	-2.2	2.4	7.1	8.0	-	3.7	2.5	
	설비투자(%)	3.6	-1.9	-11.9	-5.1	1.8	-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431	100	198	190	-	620	4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4	442	399
		수출(억 \$) 증감률(%)	5,552 (19.0)	5,479 (-1.3)	1,353 (0.4)	1,412 (0.7)	1,368 (2.7)	1,464 (4.8)	5,597 (2.2)	- (8.4)
	수입(억 \$) 증감률(%)	5,244 (23.3)	5,196 (-0.9)	1,297 (-3.0)	1,268 (-2.8)	1,260 (0.3)	1,331 (2.5)	5,155 (-0.8)	-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	3.3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